

코로나19 고위험시설 긴급방역

전북도, 다중밀집시설 4389개소 예비비 1억2700만원 투입해 실시

전북도가 코로나19 고위험시설에 대한 실태점검과 함께 예비비 1억2천여 만원을 투입해 긴급방역에 나선다.

도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기 쉬운 고위험시설인 PC방, 노래연습장, 콜센터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추진하고, 예비비 1억2,700만원을 투입해 고위험시설 긴급방역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최근에 벌이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과 대중교통시설 방역 활동 등에 이어 최근 타 지역에서 발

생한 다중밀집시설의 집단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다.

16일 기준 도에서 파악한 방역대상 고위험시설은 체육시설 1,500개소, 노래방 967개소, PC방 809개소 등 총 4,389개소에 이른다.

도는 먼저 고위험시설 실태점검을 위한 긴급점검반을 편성해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제시한 사업장 집중관리지점 점검표에 따라 현장실태 점검을 추진한다.

고위험시설 총 320개소에 대해서는

17일부터 오는 20일까지 4일간 8개 점검반 21명을 긴급 투입해 유동인구가 많은 터미널, 기차역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그 외 시설에 대해서는 표본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점검 시 감염 예방조치 미 이행 시설에 대해서는 예방지침 기준에 따라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계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위험시설에 대한 코로나19 행동수칙 등 홍보물을 배부해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홍보 활

동도 병행한다.

특히, 전북도는 긴급 예비비 1억2,700만원을 투입해 코로나19 고위험 다중밀집시설 4,389개소에 대한 조기 방역을 집중 실시한다.

송하진 도지사는 코로나19 상황대책회의를 통해 "PC방, 노래연습장, 콜센터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다중밀집시설을 빈틈없이 파악해 사업장에 대한 긴급방역을 취하라"고 지시하고, "다중밀집시설 사업주께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업장 내 위생·청결 관리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했다.

/김진성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경제 특단 대책 강력 대처”

文대통령, 코로나19 위기 극복 방안 관련 비상경제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 방안과 관련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특단의 대책과 조치들을 신속히 결정하고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3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으로서 국민 경제가 심각히 위협받는 지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모아 비상한 경제상황을 타개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비상경제회의가 곧바로 가동할 수 있도록 빠르게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는 비상경제시국을 헤쳐나가는 ‘경제 중대본’이다. 코로나19와 전파하는 방역 중대본과 함께 경제와 방역에서 비상국면을 돌파하는 두 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역과 피해극복 지원, 피해업종과 분야별 긴급지원 대책, 경기보강 지원을 순차적으로 추진했다”며 “32조원 규모의 종합대책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경제 정책의 우선순위에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최우선 가치로 둘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힘든 사람들에게 먼저 힘이 돼야 한다”며 “취약한 개인과 기업이 이 상황을 견디고 버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힘든 취약계층, 일자리를 잃거나 생계가 힘든 분들에게 대한 지원을 우선하고 실직의 위험에 직면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해야 한다”며 “또한 경제 위축으로 직접 타격을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버팀목이 되는 역할에도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양적완화 등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준비하고 있는 세계적 경제 대응 추세를 언급하며 국내 경기반등의 계기로 삼을 것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를 진정시켜 나가면서 대대적인 소비진작과 내수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본격 추진해 나갈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며 “세계적으로도 세계 각국이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계기를 우리 경제의 경기 반등 모멘텀으로 만들어내는데 역량을 집중해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비상한 각오와 특별한 의지를 갖고 지금의 난국을 극복해 나가겠다. 국민들께서도 방역의 주체로서뿐 아니라 경제의 주체로서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뉴시스

전북도, 소상공인 신속 지원시스템 구축 운영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지원 골든타임 위해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전국에서 가장 빠른 처방전을 내놓은 전라북도가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관행을 깨 속도전에 나선다.

전북도와 전북신용보증재단(이하 전북신보)은 17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특별보증 실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신속 지원시스템을 구축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지원시스템은 보증신청 등의 업무를 시중은행에 위탁해 기존 한 달 가까이 걸리던 처리 속도를 2주 이내로 단축하고,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현장심사 없이 집행에 나서 자금난에 허덕이는 소상공인 지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전북신보에 따르면 통상 하루 70건 미만인던 소상공인 보증 문의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하루 700건을 넘어 현재 1만여 건의 상담, 3천여 원 정도의 자금 신청에 이르는 등 소상공인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평균보다 10배 이상의 인원이 한꺼번에 몰리는 탓에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대출 실행이 늦어지는 등 자금 지원이 적시에 이뤄지지 못하면서 가뜩이나 절박한 소상공인들이 애를 태우는 상황이다.

도와 전북신보는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두 배 이상 신속하게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한다는 목표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먼저 그동안 전북신보에서 진행하던 보증상담, 서류접수, 현장조사, 보증심사, 보증약정 업무 중 보증신청, 서류접수, 보증약정 업무를 9개 시중은행에 위탁하기로 했다. 과중한 업무를 덜고 대출실행에 집중하기 위함이다.

위탁 은행은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수협은행, SC제일은행, 전북은행 등 9곳이며 지난 16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또한 업력(영업기간) 1년 미만, 7등급 이하(저신용자), 5천만원 초과 고액 신청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심사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전북신보에 15명의 단기인력을 긴급 채용한 데 이어 주 62시간 특별근무 계획을 승인하고, 소모되는 추가 인건비는 총인건비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김진성기자

전북도, 관광업계 지원 위해 14개 시군에 긴급 추경편성 촉구

코로나19 극복 위한 관광분야 시군 부담금 편성 요청

전북도는 17일 코로나19로 도산 위기를 겪고 있는 도내 관광업계 지원을 위해 14개 시군에 긴급 추경편성을 촉구했다.

도는 광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 주재로 열린 영상회의를 통해 전국 최초로 편성한 전북도의 코로나19 극복 긴급 추경 예산에 발맞춰 추경에 시군 부담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신속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관광분야 코로나19 긴급추경 예산은

64억원(도27, 시군31, 자부담6)으로 ① 도내 관광업계 홍보마케팅 지원예산 42억(도17, 시군25), ②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예산 7억, ③음식점 시설 개선사업예산 15억(도2.7, 시군6.3, 자부담6)이 편성됐다.

도내 관광업계 홍보마케팅 지원사업은 올해 2월말 시군에 등록된 1,399개 관광업체에 대해 종사자 수에 비례해 시군 관광부서에서 홍보마케팅 지원금을 차등(250만원, 300만원, 400만원 정도) 지급하는 사업이다.

도내 관광업체 코로나19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해 관광업체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비용(협수막, 전단지, 홈페이지 구축, SNS 홍보물 제작비, 기타 홍보용품 제작비 등)을 보조한다.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본예산 3억에서 추경 4억을 증액시켜 7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여기에는 해외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사업이 본예산 3억원에서 추경 1억원을 증액, 국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사업이 추경에서 3억원을 신규 확보한 내용이 담겼다.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우리도에 1박 이상 숙박하는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보상금(인센티브)을 도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내 여행업체의 인바운드 상품 개발 등을 통한 경쟁력 및 역량 제고를 위해 추진된다.

음식점 시설개선사업은 도내 관광식당의 시설개선을 위해 추경예산으로 15억원(도2.7, 시군6.3, 자부담6)을 지원한다.

도내 80석 이상 입식 관광식당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업체에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업체당 최대 1억원을 지원하며 시군 관광부서에서 지원한다.

/김진성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